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게타추 엔가다 유네스코 부총장,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강운태 광주시장,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및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들이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주제로 18일까지 열리는 포럼에는 44개국 112개 도시, 5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가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5·18 국제적 인권이슈 발전시켜 공동 연구해야”

##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참석 최성 고양시장

전 세계 인권활동가 550명이 집결한 '2013년 광주세계인권포럼'에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성(49) 경기도 고양시장은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세계인권포럼 '인권제도와 정책'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에바 유에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사무국장 겸 수석부대표 교수, 이발대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등 인권 전문가 10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특히 광주 출신으로 차세대 정치지도자에 꼽히는 최 시장은 김대중 정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성(49) 경기도 고양시장은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세계인권포럼 '인권제도와 정책'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에바 유에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사무국장 겸 수석부대표 교수, 이발대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등 인권 전문가 10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고양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급증한 주민 총살 암매장 사건 등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민족적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곳으로,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언론, 사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인권신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5·18 광주항쟁처럼 중요한 인권운동은 국제적인 이슈로 발전시켜 국제 인권운동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인권이라는 주제는 세계화돼야 하며, 특히 일본이 개발을 일삼고 있는 위안부 문제 등은 전 세계적으로 규탄하고 결의해나가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또 “내년 광주 포럼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노동과 환경 등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한다”며 “고양시에서도 내년에는 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인권신장을 위한 대안을

## 이희호여사, 개관 앞둔 'DJ기념관' 둘러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16일 목포 삼학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았다. 목포시가 국비 200여원을 들여 지은 이 기념관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다음달 15일 개관할 예정이다. 전시물을 둘러본 이 여사는 “평소 김 전 대통령이 고향에 내려가 바다를 보려는 곳에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여사는 ‘화해와 용서의 지도자’ 코너에서 “대통령 재임 당시 박정희 기념관 건립 재정을 결정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었던 부분이 더 많이 전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여사는 직접 기증한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입은 ‘턱시도와 한복’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기도 했다. 기념관 건립에 애쓴 정종득 시장 등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이 여사는 이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이동했다. 17일에는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제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전시동과 컨벤션동으로 이뤄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1만5600㎡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다. 노벨평화상 기념메달을 비롯 상장, 학적부, 정취입문 당시 연설문, 육중서신, 미국 망명 당시 사용한 사무실집기, 생활소품, 대통령 선서문, 대통령 업무당시 사용한 소품, 저작도서 50여 권 등 3830점이 전시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朴대통령 “지방공약 최선 다해 이행”

### 새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지방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방 공약을 최선으로 다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범위, 추진시기, 소요재원 등을 구체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정외 배분, 즉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의 작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국가채무 관리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방안 등도 논의됐다. 회의의 핵심은 ‘세출구조조정’이었다. 돈 나을 곳을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의 씹음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데 각 정부처가 ‘자기희생’을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당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언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영광 낙월도 방치된 육영수여사 추모비

## 76년 학교건립 지원 기려 건립... 주민 후에 편지

육지에서 배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영광의 외딴섬 낙월도. 1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만 남아있다. 1970년대 설립된 '낙월 새마을 중학교'는 2005년 연산중학교 나월분교로 통합되면서 마지막 졸업생 30여명을 배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빈 건물만 황량하게 남아있는 낙월중학교 부지에는 1974년 8월 피살된 고(故) 육영수 여사의 추모비가 남아있다. 1976년 8월 마을 주민들이 학교를 건립해준 육 여사의 뜻을 기려 세운 이 추모비는 현재 찾는 사람이 없어 방치돼 있다. 버려진 학교 건물과 함께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추모비에는 '당신의 높이선 꿈이 외로운 섬 기슭에 저 푸른 바다를 향해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중학교를 짓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추모비를 건립합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1970년대 조그만 섬 마을에 아

이들을 가르칠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한 주민들은 심시일만 돈을 내 야학을 설립했다. 그러나 시설은 매우 열악했고 교재를 구입할 비용마저 없어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 1974년 이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접하게 된 한 목사가 육영수 여사를 필쳐오던 육 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육 여사는 아이들의 딱한 사연을 접하고는 학교 설립과 지원을 약속하고 청와대로 학생들을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74년 8월 15일 육 여사가 피살되면서 학교 설립 약속도 흐지부지됐다. 이후 새마을 운동 지도자인 조용현씨 등 마을 주민들이 당시 육 여사를 대신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필한 박근혜 영애에게 고인의 뜻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학교 건물을 짓도록 조치했고 1976년 이 시설은 '낙월 새마을 중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중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최근 방치된 학교 부지를 찾아 추모비를 발견한 조용현(75·영광



낙월 새마을 중학교 부지에 방치되고 있는 육영수 여사 추모비.

군 낙월면 상낙월리)씨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방치된 추모비의 사연을 적어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다. 조씨는 “외딴 섬 마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육영수 여사의 노력이 잊혀지는 것만 같아 안타까워이 사실을 알리게 됐다”며 “주변을 정리해 고인의 뜻을 받들어 연수원이나 교육시설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美연구팀, 사상 첫 인간배아 복제 성공

### 줄기세포 이용 질병 치료 도움

미국 연구팀이 17년 전 최초의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킨 것과 똑같은 체세포 핵 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복제하는 데 사상 처음 성공했다고 AP 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나중 허위로 밝혀졌지만 2004년 황우석 박사가 시도했던 바로 그 정리의 씹음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데 각 정부처가 '자기희생'을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당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언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배아세포가 주입된 난자가 전기충격을 가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처럼 수정이 이루어져 세포

분열을 하게 만들었다. 이를 150세포 단계인 배반포까지 키운 다음 배아줄기세포를 채취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했다. 이 배아줄기세포주는 근육, 신경 등의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탈리프 박사는 이 복제배아가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복제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면 복제인간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복제 가능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원숭이 배아를 이용한 6년에 걸친 거듭된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인간배아 복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배아 복제의 성공으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 연구가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복제 성공한 배아줄기세포 개요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금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금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로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129억 최저가20억
-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172억 최저가20억
-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5억5천만 최저가3억8천만
-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1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14억3천만 최저가12억4천만
- ▷ 동구 신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1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126억 최저가15억
-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 매매**

- ▷ 화순읍 연양리 자연지역 대지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1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금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로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자세한 문의로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공장, 창고, 전시장 등 매월동 서광주역 인근 2차순환도로 접 지면적 전 1.620㎡(493평) 매매가 200만원 조정 개지동차관사실, 전시장, 창고 등 투자적합  
투자 및 다용도로 토지 고흥군 동강동 동강중 부근 학교-교차로 4차선 교차로 코너 권리지역 임야 6,600㎡ 매가 1억 5천 (교통, 접근성 편리, 경사도 없음)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담어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